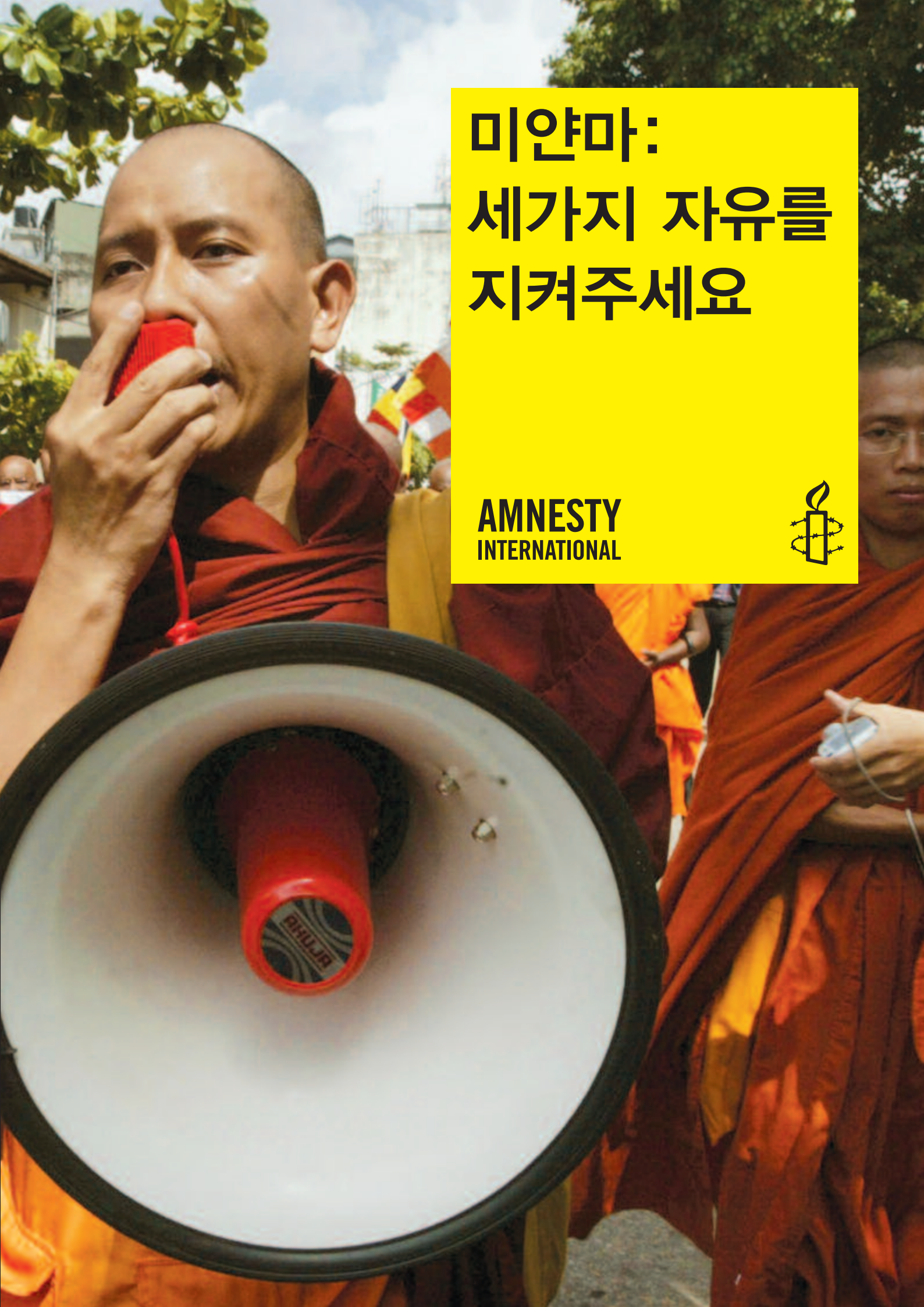


# 미얀마: 세가지 자유를 지켜주세요

**AMNESTY**  
INTERNATIONAL





미얀마(버마)는 2010년 11월 7일, 20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얀마 시민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모이는 것이 계속 심각하게 제한 받고 정치수는 계속 갇혀있게 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반대는 폭력적으로 진압될 수 있습니다.

1990년 치러진 마지막 선거에서 민족민주동맹(NLD)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군부는 이들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자 아웅 산 수치 여사와 소수민족 출신 활동가를 포함한 당원 대부분은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얀마의 인권 기록은 참담했습니다. 보안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살상 무기까지 사용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일상적으로 고문을 자행했고 정부는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려 장기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억압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족과 멀리 떨어진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2,200명 이상의 정치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 9월에 열린 대규모의 대중시위인 “샤프론 혁명”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미얀마 당국은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선거를 앞둔 미얀마에서는 표현 ·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

위: 한 남성이 논란이 되었던 2008년 국민투표 당시 양곤 근처 Hlaeuk 거주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 AP Photo/Democratic Voice of Burma

우측: (2008년 헌법 초안에 대해) “NO” 라고 주장하는 보트가 2008년 5월 미얀마 Kayah 주의 Bluchon 강을 지나고 있다. 이는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카레니족 활동가의 평화 시위의 일부이다. © KNGY

## 신헌법

2008년 5월 미얀마 당국은 정부 관료, 보안군을 포함해 인권침해의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정부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국민투표나 국민투표 찬성 운동을 벌인 사회정치기관인 연맹공동체개발협회(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USDA)에 대한 공공 비판을 금지했습니다. 평화적인 반정부 활동가의 국민투표 반대운동은 현금 인센티브, 언론 조작 및 독점, 괴롭힘, 체포, 개별 활동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 등으로 심각하게 제재를 당했습니다. 2008년 4월 기준, 70명 이상의 국민투표 반대 활동가가 체포되었고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적어도 55명이 여전히 감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2008년 5월 2일과 3일에 걸쳐 14만명 이상의 사망·실종자를 발생시킨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한 직후 국민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98.1 퍼센트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92.4 퍼센트가 신헌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군인들이 강제로 사이클론 생존자들을 투표소로 데리고 갔으며 학교나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를 내쫓고 이 장소를 투표소로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부 생존자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 선거법

2010년 3월 미얀마 정부는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 5개의 선거법과 4개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표현·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 법률들은 자의적으로 “어떤 법원에서든 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자”를 포함해 미얀마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선거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Pyithu Hluttaw 선거법, SPCD 법률 No.3/2010, 제 4장 / Amyotha Hluttaw 선거법, SPCD 법률 No.4/2010 제 4장). 이것은 2,200명 이상의 정치수들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 “정당등록법”은 아웅 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수감 중인 수백 명의 반정부 인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수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당등록법, SPDC 법률 No.2/2010, 제 3장)
- 이 선거관련 법률들은 선거 출마 자격에 제한을 두는데 그러한 제한은 비폭력적 반대 집단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 단체”와 “접촉했다고 믿을만한” 사람도 출마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Pyithu Hluttaw 선거법, SPCD 법률 No. 3/2010, 제 5장)

- 이 선거관련 법률들은 선거 참여나 불참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는 모호하게 기술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yithu Hluttaw 선거법, SPDC 법률 No.3/2010 제 8장 / Amyotha Hluttaw 선거법, SPCD 법률 No.4/2010 제 8장) 이는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자들이 선거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1996년에 제정된 “평화적이고 조직적인 정권 이양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정, 지역 사회의 평화와 안정, 법과 질서의 보급을 저해하는 선동, 연설, 구두 또는 서면 성명을 발표하는 자에게 5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이 법을 위반하는 단체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연합선거위원회(UEC)는 정당이 “안보, 법치 및 지역 사회의 평화에 해가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 소수민족 정치활동가에 대한 탄압

2008년 미얀마 카레니족 출신의 정치활동가인 쿤 베두(KHUN BEDU), 쿤 카우리오(KHUN KAWRIO), 쿤 디데(KHUN DEE DE)는 국민투표를 평화적으로 반대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의 모임인 카얀신세대청년회(KAYAN NEW GENERATION YOUTH)를 이끌고 있던 이 셋은 지역 내 반정부 인사들이 풍선 날리기, 종이배 띄우기,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평화적인 정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15일간의 신문 기간 동안 이들은 지속적으로 고문을 당했으며 재판도 판사도 변호사도 없이 군관계자들에 의해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쿤 카우리오와 쿤 베두는 37년 형, 쿤 디데는 35년 형을 받았습니다. 소수민족 활동가들은 미얀마 내 주류 반정부 세력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활동을 시도했다가 체포, 수감, 고문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10년 2월 발간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미얀마 내 소수민족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화적인 정치적 이견 탄압

지난 수년 간 미얀마 당국은 수천 명의 시민을 투옥시킨 것을 두고 이들이 사회 불안을 유발하고 법과 질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거나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여러 안보 관련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은 국가의 통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치적 이견을 표현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제출한 자료 참조)

미얀마 정치수 2,200명 중 대다수는 단순히 세가지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수감자 중 상당수는 정당 지도자나 풀뿌리 운동가로서 석방되지 않는 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얀마의 감옥 상황은 열악하며 일상적으로 고문이 자행될 뿐 아니라 수감자에게는 충분한 음식과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치수는 가족 및 지원 단체와 멀리 떨어진 장소로 빈번하게 이감됩니다.

이번 선거를 보이콧하고 있는 민족민주동맹(NLD)과 소수민족 활동가들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더욱 거센 탄압을 마주할 것이라는 실질적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6월에 도입된 새로운 검열규정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독립 언론매체 역시 선거 과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 과거의 탄압

미얀마의 과거를 보면 반대자들의 대중적인 활동이 잔인한 탄압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8.8.8.

1988년 8월 8일, 미얀마의 과거 수도였던 양곤(옛 랑군)에 학생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당국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며 26년간의 군정을 종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6주 동안 시위는 그 규모와 대중적 지지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보안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3,000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 샤프론 혁명

2007년 11월, 승려들은 수만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샤프론 혁명으로 알려진 대규모의 평화적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하고 구타하는 등 살상 무기를 동원해 대응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약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보안군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에서 시위 진압을 위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미얀마에서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관심을 기울여 선거 전후 미얀마에서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미얀마 시민들은 계속해서 세가지 자유를 부인당할 것이며 결국 긍정적 변화를 위한 또 다른 기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

양곤 중심가에서 경찰이 길을 막아선 가운데 불교 승려들이 기도하고 있다. 2007년 9월 26일, 미얀마 © AP Photo/The Mandalay Gazette, HO



## 미얀마: 세가지 자유를 지켜주세요.

미얀마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약속했습니다. 미얀마와 인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 대다수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요구하며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희망을 표명하기만 한다고 현재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말뿐인 요구만으로는 현재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선거를 전후해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선거 반대 유세,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보도, 검열 없는 유세 자료 출판, 처벌 없이 언론에 자유로운 의견 표출, 정당 가입 및 모임이나 시위 조직 등 시민들의 표현,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평화적인 활동으로 수감된 모든 정치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미얀마 주변국, 관련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당국에 세가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선거 전후에 평화적인 견해나 활동으로 인해 개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구금될 경우 이를 강력히 규탄하라.

우리는 미얀마 당국이 한편에서는 선거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탄압을 계속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2010 미얀마 총선 과정에서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전지구적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들이 미얀마에 세가지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지금 행동하세요

미얀마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 특별히 미얀마 주변 국들은 미얀마 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탄압되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미얀마 정부에게 세가지 자유를 보장하라고 말할 때입니다.

지난 2007년 샤프론 혁명 당시 미얀마 보안군이 평화적 시위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을 때 국제앰네스티는 ASEAN 회원국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ASEAN은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수 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ASEAN은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외무부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후에 더욱 심각해질 미얀마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SEAN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지금 ASEAN에 미얀마 정부가 표현·집회·결사의 세가지 자유를 보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 ASEAN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ASEAN 회원국이 미얀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압력을 가해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인권과 사회정의의 보호와 증진” 이 명시된 ASEAN 헌장의 구속력 있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십시오.

- 평화적인 정치활동이나 인종 또는 종교 때문에 수감된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미얀마의 모든 시민이 선거 기간 전후에 표현·집회·결사의 세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

<http://3freedoms.amnesty.org> 에 방문해 ASEAN 회원국 각료들에게 미얀마 내의 세가지 자유를 지키라고 요청 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여개국 220만명 회원이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지: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승려들이 샤프론 혁명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2007년 9월 © AP Photo/Eranga Jayawardena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16/012/2010  
한국어판 발행일: 2010년 10월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특별시 중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045호  
Tel. 02-730-4755  
Email. [info@amnesty.or.kr](mailto:info@amnesty.or.kr)  
[www.amnesty.or.kr](http://www.amnesty.or.kr)